

세계기도정보

[니제르] 납치된 미국 선교사, 두 달째 행방 묘연

[남수단] 항공기 납치 시도…조종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자 포기

[이란] 국제종교자유유, “이란 에빈 교도소는 기독교 양심수 조직적 학대 시설”

[대만] 연말 도심 홍기난동 참사에 대만 충격

[니카라과] 성경 반입 금지…국제사회 “종교·언론 자유 억압”

[독일] 비벨 TV, 전국서 ‘하나님과 신앙’ 캠페인 시작

[토켈라우] 태평양 섬나라 주민들, 자국어로 된 첫 성경 완전 번역본 받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세계 최대 힌두교 신상 건립…“미국의 정체성 훼손” 비판 확산

[파akistan] 목사 표적 피살… 기독교계 불안 고조

[캐나다] 하원 사법·인권위, 증오범죄 법안에서 ‘종교 신념 방어’ 삭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2024년 교회·예배당 대상 범죄 849건…“반달리즘 심각성 증가”



2025. 12

멕시코에서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정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바다를 넘어..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홍수 속에서도 심은 계획.

12월 14일, 수해 지역에 있던 빠코 형제가 소속된 교회는 수해 지역 주민 전체를 돋자고 말하는 나의 말에 주저한다. 이들은 인근지역에 지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현금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 피해를 본 수혜민을 돋는 일에는 주저하고 있다. 빠코가 말한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가진 현금이 없어 이웃을 도울 수 없다면, 우리 교회가 수혜민을 돋기 위한 급식 사역을 위해 우리의 몸으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일을 도웁시다. 저는 지금 저의 집이 완전히 침수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웃을 돋는 일을 제일 먼저 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수해 피해를 입은 빠코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이 일에 기쁘게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12월 15일 월요일, 빠코 형제와 연락을 했다. 빠코 형제가 있던 곳보다 네 배는 큰 지역, 지역 전체의 90% 가 완전히 침수된 곳을 돋는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는 장로교회 두 교회와 이야기를 나누며, 두 교회가 연합해서 언젠가인지 알 수 없는 정부의 지원이 있기까지 먼저 지역 교회가 중심이 되어 수혜민을 돋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역교회가 연합해서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나에게 말한다. 교회끼리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곳은 출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과 셀탈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이 사는 곳으로 되어있었다. 한 교회는 지역민 전체를 섬기는 것에 동의했고, 다른 한 교회는 수해 피해를 입은 자신의 교인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부족간에 서로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것이 이곳의 문화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종과 언어, 국가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종을 주장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구제가 연합된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연합할 수 없다면 제가 어느 교회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며칠간의 논의에도 이들은 연합할 수 없었다. 결국 수해 규모가 가장 크고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지만, 무료 급식소를 만들 수 없었다. 이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전도 집회 앞, 늦은 홍수!

12월 9일 화요일, 멕시코 빨렌케 스구름빠 지역의 미겔 목사로부터 이쁜 새벽 동영상과 사진들이 나에게 도착한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제가 있는 곳과 빠코 형제가 있는 곳에 밤새 비가 내려 홍수가 났습니다. 지금 이 일대 모든 마을이 잠겼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도로가 침수되었지만, 빠코 형제가 있는 곳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놀라 빠코 형제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밤새 내린 비로 그의 본집과 본가가 있는 마을이 완전히 침수되면서, 전기도 전화도 그리고 식수도 끊어진 상황이었다.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빠코 형제와 연락이 되었다. 이를 동안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침수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 그는 홍수 때 빨렌케 도시에 있던 집에 있었지만, 딸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홍수로 인해 산속 집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48년 동안 저의 집이 홍수에 완전히 잠기는 일은 처음입니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돋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완전히 침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1월 7

일부터 전도 집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겨울 홍수라니… 큰 집회 앞에 큰 홍수, 어쩌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메리다 미겔 목사와 통화를 하고, 메리다 지역 교회에서 구제 현금을 일으키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먼저 현금을 수해지역에 보내며, 빠코에게 말한다: “빠코 형제, 1월 전도 대회를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한 텐트, 야전 침대와 침낭, 가스버너 및 파워뱅크와 랜턴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침수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서 국가의 구호품이 도착하기 전 먼저 사용하세요.” 그리고 각 지역 교회에 연락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현금을 마중물 삼아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하루에 한 끼라도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 주도록 그들을 독려했다.

12월 12일 밤, 산속 마을로 가는 도로가 붕괴되어 우리가 보낸 구호품도 전달할 수 없다. 주정부는 이들 인디언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여전히 정전과 식수가 차단된 상황 속에서, 피해 주민들 중 성도들이 모여, 우리가 보낸 랜턴과 발전기 그리고 야전 침대를 가지고, 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영상이 나에게 도착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찬양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나의 심금을 울린다.

너는 마중물이 되라!

내가 나눈 기도제목을 통해 곳곳에서 현금과 물품이 도착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역 교회의 결정은 너무 느리기만 하다. 당장 며칠 동안 잠잘 곳도, 음식 할 곳도, 침수된 마실 물도, 전기도 없는 상황이지만, 수혜민의 마음과 달리 결정이 느리다. 멕시코 현지에서 보내준 구호품은 100% 빨렌케로 바로 보내며, 나는 교회와 노회에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 지금이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현금을 마중물 삼아 여러분께서 더 현금을 일으키시고, 구호품을 더해서 낙담 가운데 있는 지역 주민들을 교회의 이름과 교분 교단의 이름으로 섬겨 주십시오.” 펜데믹 기간 우리가 했던 오떡이어 도시락 사역에 대해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선한 일에 주체가 되어주길 요청했다.

12월 기도제목:

- 11월 8일~11일까지 있을 치아파스 빨렌케(출 부족) 전도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일을 섬기기 위해 참여하는 족전우리교회 선교팀과 메리다 미겔목사 교회 선교팀 가운데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 1월 21일~25일까지 치아파스 빨렌케의 아구아솔(셀탈 부족)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사 세미나를 통해 지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간직하며 어린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섬기기 위해 참여하는 처음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부산행복한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을 수 있도록.
- 2월 26일~28일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에서 메리다 팀을 통해 처음 실시되는 교사 양육 세미나를 통해 현지 교회들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동시에 현지 교회가 자립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 아내와 나의 육체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부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